



광산소방, 노유자시설 대상 K급 소화기 배부

광주 광산소방서는 관내 요양원 등 노유자시설을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컨설팅을 전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K급 소화기란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빠르게 기름 온도를 낮춰 진화하는 ‘주방화재 특화 소화기’를 말한다.

광산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피난약자시설을 직접 방문해 소방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K급 소화기를 보급했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거동불편 환자들이 많은 노유자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과 피난계획이 중요하다”며 “식용유 등의 사용이 많은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안전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코레일 목포역, 철도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코레일 광주본부 목포역은 지난달 30일 목포역 일원에서 목포차량·시설·전기·신호제어사업소 및 목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철도교통안전의 달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9월 철도교통안전의 달·자살예방의 달을 맞아 대국민 철도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관계자들은 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및 생명존중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철도건설목 우선 정지 및 선로 무단통행 금지 등 철도안전 수칙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김성모 코레일 목포역장은 “이번 캠페인이 지역 내 철도안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역민들의 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전남연구원, 지방소멸 대응 연구 협약

1일 광주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민주연구원, 전북연구원, 전남연구원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지난 30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한 4개 연구원은 앞으로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발전과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행을 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사회 정책개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기획과 도입 공동연구 협력 등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도시철도, 노년층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광주시 서구 상무역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노인 인식 제고를 위한 대시민 캠페인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년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시철도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노년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노인 인식 개선 사진전’을 열고 노인 학대 예방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쳤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캠페인이 노인 세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중 받는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구례적십자사회,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달 28일 저장강박증을 가진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은 적십자 구례읍봉사회 봉사원이 참여해 구례군 구인실길에 거주하는 가구를 방문해 진행됐다.

봉사원들은 그동안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고 집 내부를 청소하며, 이동세탁차량으로 의류와 이불 빨래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대상 가구는 오랫동안 방치됐던 집이 정리돼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그동안 쌓인 쓰레기로 어르신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심했는데 도움 주신 적십자 봉사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으로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광주시-광주은행, 창업펀드 공동출자 협약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광주은행,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광주시 창업성장사다리펀드’ 공동 출자 및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갑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광주시가 조성하는 창업펀드에 3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광주시 창업성장사다리펀드는 광주 9대 주력산업 분야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 20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광주시 출자금 170억원과 광주은행의 출자협약 30억원 등 총 200억원이 지역 출자금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창업성장사다리펀드는 지역 출자금의 2배수 이상을 광주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이병철 신임 기획조정실장 임명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에 이병철(사진)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이 지난달 30일자로 임명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나주 출신으로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전담직무대리 등을 거쳤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장·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해 기획·예산 전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행정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이 신임 기획조정실장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민·군공방 통합 이전,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등 민선8기 후반기 핵심현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획조정실장은 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립목포대학교 사무국장을 지내 지방대학 교육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네트워크를 쌓은 만큼 광주시의 지역대학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캠퍼스30 선정 지원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보훈병원, 세계 심장의 날 기념 건강강좌

심혈관계 질환 인식 제고

광주보훈병원은 지난달 28일 전문진료센터 3층 보훈홀에서 세계 심장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사진)

1일 광주보훈병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건강강좌는 정명호 전문의의 개회사로 시작해, 광주보훈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들이 심혈관질환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참석한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한정연 전문의는 ‘부정맥’에 대한 강의를 통해 심장 박동의 이상 및 관련 증상, 예방 방법을 설명했고, 강원우 전문의는 ‘말초혈관질환’에 대해 다루며 다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소개했다.

이어 김보배 전문의는 ‘심부전’의 증상과 관리 방법을, 김인재 전문의는

‘관상동맥질환’의 경고 신호와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정명호 전문의는 폐회사에서 “이번 강좌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뇌혈관 질환 연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삼용 병원장은 “순환기내과 부장님들이 준비하신 이번 강좌가 지역주민 분들이 심혈관 질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보훈병원은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보훈병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 남부경찰, 남구자율방범연합대 2차 합동순찰

광주 남부경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7시에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서 남부경찰, 남구, 남구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자문관 등 2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구자율방범연합대 2차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된 이번 합동 순찰은 남부경찰서장과 자율방범대원이 △백운교차로 △봉선동 쌍

용사거리 △유안초등학교까지 함께 우범지역을 함께 순찰하며 남구의 안전과 범죄 감소를 위해 노력했다.

송세호 남부경찰서장은 “범죄로부터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힘써 준 자율방범대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치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